

#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천교회)

공인석(김명숙) 김순석(임영득) 김정연A(이선분) 김종선(박영숙) 김춘화 김현욱 박승현 박종삼(이명원) 방복순 서진화(최봉순) 석형기(이희순B) 송미선 송부현(김영진) 여운희 오귀숙 유현호(이영미) 이기자 이명희(문영원) 이상희 이종문 이창규(곽정순) 장명원(김옥자) 정삼래 채만기(장은주) 최성현(윤정자) 최순재 최정규(김미영) 황영욱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천교회)

김명숙(공인석) 김병욱(이영숙) 김옥자(장명원) 김춘화 박종삼(이명원) 방현욱(신영신) 송부현(김영진) 여운희 이경자(주경덕) 이기자 이명희(문영원) 이은옥 이창규(곽정순) 이향교 이희순B(석형기) 임영득(김순석) 장명원(김옥자) 정옥순 조규래 최봉순(서진화) 최순재 황영욱 새 틀

**♣️ 감사헌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천교회)

이필재 김경엽(손정아) 김규찬(최훈자) 김병욱(이영숙) 김수자 김유건 김정연B(강준식) 김중희(박애순) 김춘화 박권재(송영숙) 박복순(김대준) 박부웅(최귀남) 박지순(정경석) 박혜진(장동민) 석형기(이희순A) 성미영(박영식) 여운희 영영분(천세력) 윤정자(최성현) 이오순(김형국) 이필숙 이종문 이한철(박희영) 이향교 장성자 전순봉 정삼래 조규래 채영업(서시철) 하세련

###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강은미 김민서 김민성 김민준 김준구 박민서 박서광 박순자 박승현 박준홍 박복순 배병찬 백경자 송백현 심순옥 양영욱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노을 이상희 이소은 이승혜 이아름 이윤남 정승현 정혜지 주성탁 최귀남 최선미

### ♣️ 월정헌금

전갑희

## 주간 성경연구

39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창세기 27장 30절 ~ 46절		
월요일	창세기 28장 1절 ~ 9절	목요일	창세기 29장 15절 ~ 30절
화요일	창세기 28장 10절 ~ 22절	금요일	창세기 29장 31절 ~ 35절
수요일	창세기 29장 1절 ~ 14절	토요일	창세기 30장 1절 ~ 13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훈 강영성 김병욱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욱 장명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 사	김재호		
	전 도 사	이필레		
찬양대	교육전도사	김선희		
	반딧사	지휘자	할 켈 루 야 <span> </span> : 김한나 시은·에덴 <span> </span> : 최원지	훈 산 나 <span> </span> : 김안나 켈 <span> </span> :
		오르간	심해운	
		피아노	김민지 하유리 김미희 최유경 이상희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솔리스트	김안나, 김정아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 국 <span> </span> : 김경숙	이 집 트 <span> </span> : 김진숙	
		수 리 남 <span> </span> : 안석렬 이성욱	A X 국 <span> </span> : 김해월	
		미 국 <span> </span> : 김다니엘	A X 국 <span> </span> : 이분옥	
		국 <span> </span> : 최옥희	모 잠 비 크 <span> </span> :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 국 <span> </span> : 박영성 정세미	태 국 <span> </span> : 박경환 이순연		
	멕시코 <span> </span> : 김홍기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즐거운교회, 가나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영등포시찰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서울남노회 미래 자립위원회.			

2022. 09. 18.

<b>빌닷의 잘못된 관점들</b>	
<b>옵기 8장 1-7절</b>	<b>설교: 이진우 목사</b>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시며 그 자녀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찰한다는 것은 우리를 감시하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도우시며,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라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더욱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죄의 길에서 떠나 우리의 삶이 더 의롭고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오직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옴이 말하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빌닷이 옴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옴을 공격하는 빌닷의 논리 속에는 합당하지 않은 잘못된 관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도 빌닷과 같은 관점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빌닷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버려야 하는 잘못된 관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봄에 더욱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도가 버려야 하는 잘못된 관점은 무엇입니까?

1. 모든 문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관점입니다.

- 옴의 이야기를 들으며 빌닷의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은 분이지만, 인간은 언제나 불의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빌닷은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적으로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빌닷 앞에서 옴이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부당하게 고난을 주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이러한 옴의 주장에 화가나 옴을 정죄하면서 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고 공격했습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이 겪는 고난과 고통이 모두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빌닷은 자신의 확신에 근거해 옴의 무죄 주장에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를 판단하며 정죄하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행하는 우리들을 깨우치시고 돌아오게 하려는 방편으로 고난과 고통이라는 막대기를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상처를 싸매시며 고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게다가 고난의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 때문인지, 죄 때문이지, 다른 것 때문인지를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고난당 할 때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며, 이것은 오만하며 교만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먼저 그저 그를 위해 기도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빌닷의 잘못된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2. 인과법칙은 절대적이라는 관점입니다.

- 빌닷은 옴의 자녀들도 정죄합니다. 빌닷은 옴의 자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옴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는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들은 것도, 본 것도 없습니다. 되어진 결과를 보며 이 모든 것을 추측하며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닷은 옴의 자녀들이 일시에 암사당한 것이 틀림없이 그들의 죄값이라고 공개적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굄지 않게 하시고, 공의를 굄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 범죄하지 않은 자를 그렇게 죽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샤스는 자녀들에 대한 것을 암시적으로 지적했지만, 빌닷은 공개적으로 단정하여 말함을 통하여 옴을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참으로 빌닷은 옴의 가장 치명적인 아픔인 자녀들의 죽음까지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과법칙의 관점으로 판단한 것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씨앗은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는 분명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땅히 정죄 받아 죽어야 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태도요 자신의 오만과 교만으로 행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인과응보의 원리로 양육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우리는 대부분 엄격하고 완고한 분위기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무조건적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와 긍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따뜻한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게 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오늘도 천국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더욱 감사하며 이제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로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과응보의 법칙을 우리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고착화된 지식과 생각으로 확신하며, 판단하고, 적용하여,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것은 오만이며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만 달란트 빛진 자를 탕감해 준 어떤 임금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만 달란트 빛진 자는 임금의 자비로 그 빛을 모두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백 데나리온 빛진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 결국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박탈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넘치는 자비로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용서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빌닷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오만하고 교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지식과 판단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가고 그들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SINCE 1975

No. 48 - 39

2022. 09. 25.

대한예수교장로회

#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치료의 광선을 비추소서” (말라기 4장 2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 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b>동산의 샘</b> A garden fountain	<b>생수의 우물</b> A well of living	<b>흐르는 시내</b> Flowing streams (아가 4:15)
<b>담임목사</b> Senior Pastor	<b>이진우</b> Yee, Jin Woo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